

의료자원				번호: IV - C - 3	
제 목	국문	우리나라 의사와 한의사의 직무 비교분석			
	영문	Comparison of Job Description of Medical Doctor and Doctor of Oriental Medicine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용우, 윤태영, 최봉근, 최종명, 유동준, 박순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Yong Woo Lee, Tai Young Yoon, Bong Keun Choe, Joong Myung Choi, Dong Joon Lew, Soon Young Park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의료자원-기타	발 표 자	윤태영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1. 서론</p> <p>의사와 한의사의 진료 영역에 관한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 임상과목의 학습목표의 내용은 의과대학 해당 학습목표의 75%를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의학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를 모색하는 토론회 등이 의학계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직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간행한 우리나라 의사(2001년)와 한의사(2000년)의 직무분석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p> <p>3. 결과</p> <p>1) 한의사의 직무기술서를 기준으로, 『병력청취』 임무(duty)에서는 '환자 맞이하기', '주요문제 확인하기', '현재병력 묻기'의 「방문이유 확인하기」 일(task)과, '사회력 묻기', '과거력 묻기', '가족력 묻기'의 「주요 문제관련 병력확인하기」 일 등, 6개 일의 요소(task element) 전부가 의사의 『병력청취』 임무와 동일하였다.</p> <p>2) 『진찰/병증』 임무에서는 「망진하기」, 「맥진하기」, 「문진(問診)하기」의 일과 8개의 일의 요소를 포함하는 「변증하기」 일이 의사의 직무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문진(問診)하기」, 「청진하기」, 「타진하기」, 「활력징후 측정하기」, 「신경반사 진찰하기」 일은 의사와 동일하였다. 「촉진(안진)하기」 일에서는 5개 일의 요소에서 경혈 및 경근에 관한 지식이 요하는 것이 의사와 차이를 나타낸 부분이었다. 전체 37개 일의 요소 중 18개가 동일하게 판단되었다.</p> <p>3) 『검사』 임무에서는 「경락반응 검사하기」 일의 2개 일의 요소, 「맥파형 검사하기」 일의 '맥진도기로 검사하기' 일의 요소, 그리고 「영상 검사하기」 일의 '체열측정기로 검사하기' 일의 요소가 의사와 달랐으나, 「병리 검사하기」 일의 7개, 「영상 검사하기」 일의 7개, 그리고 「기능 검사하기」 일</p>					

의 2개 일의 요소가 동일하였다. 전체 20개 일의 요소 중 16개가 동일하게 판단되었다.

4) 『진단』 및 『치료』 임무에서는 「증후성질환 진단(치료)하기」 일의 37개 일의 요소 중 10개에서 의사와 동일하며, 나머지 「감염성질환 진단(치료)하기」 일의 3개 일의 요소 모두, 「혈액, 조혈기관 및 종양(신생물)질환 진단(치료)하기」의 9개 모두,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진단(치료)하기」의 8개 중 7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치료)하기」의 6개 중 5개, 「신경계질환 진단(치료)하기」의 4개 중 2개, 「순환기계질환 진단(치료)하기」의 7개 모두, 「호흡기질환 진단(치료)하기」 6개 모두, 「소화기질환 진단(치료)하기」의 16개 중 15개,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 진단(치료)하기」의 8개 중 6개, 「안이비인후과 질환 진단(치료)하기」의 10개 중 3개, 「근골격계 및 류마티스 질환 진단(치료)하기」의 6개 중 3개, 「신장 및 요로질환 진단(치료)하기」의 9개 모두, 「여성생식기 질환 진단(치료)하기」의 4개 모두, 「임신 및 출산 진단(치료)하기」의 2개 모두, 「신생아 및 영아질환 진단(치료)하기」의 3개 모두, 「성장발육 진단(치료)하기」의 1개, 「응급특수상황 진단(치료)하기」 일의 4개 일의 요소 모두에서 의사와 동일하였다. 전체 143개 『진단』의 일의 요소 중 99개, 『치료』의 일의 요소 143개 중 88개가 동일하게 판단되었다.

5) 『병원관리』임무의 6개 일에서 23개 일의 요소 중 1개(의료보험청구서 관리하기)를 제외하고 의사와 동일하였으며, 『보건관리』임무의 3개 일에서 22개 일의 요소 중 2개(모자 보건 교육하기, 민간요법 지도하기)를 제외한 20개가 의사와 동일하였다. 『자기계발』임무의 2개 일에서 6개 일의 요소 모두가 의사와 동일하였다.

6) 전체적으로 한의사 직무 400개 일의 요소 중 275개 (68.75%)가 의사와 일치하였고, 의사의 직무 335개 일의 요소 중 261개 (77.91%)가 한의사와 일치하였다.

7)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 274개의 일의 요소에 대하여, 빈도에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110개(40.1%), 중요도에서는 148개(54%), 그리고 난이도에서는 157개(57.3%)이었다.